

『인권연구』 9(1): 201-207.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9(1): 201-207.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6.9.1.201>

[서평]

기후 파국 앞에 선 인류에게 필요한 것, 욕구 충족의 ‘포기’인가 다른 방식의 ‘만족’인가?:

『불타는 지구에서 다르게 살 용기』 (조효제, 창비, 2025) 서평

서영표*

오랫동안 기후변화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20세기 중반부터 생태적 위기에 대한 경고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와 1987년 유엔의 브룬틀란 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는 전 세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기후위기 회의론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우파는 성장과 번영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본주의적 확대재생산을 옹호했고, 좌파는 환경문제로의 관심 이동을 계급투쟁의 교란으로 비난했다.

21세기 들어 현실에서 체험되는 위기의 증상들과 생태주의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논쟁으로 이어져 어느 정도의 합의에 이르렀다. 20세기 말의 굵직한 계기들은 이런 의견 수렴의 결과였다. 리우회의,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그리고 2015년 파리협정까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변화하고 있는 기후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학술적 논의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위기가 다가오는 속도와 비교해 대응은 더뎠지만, 회의론자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기술적으로 실현되고 있었고, 좌우의 차이를 넘어 녹색뉴딜의 여러 버전이 제시되고 논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의되기도 했다. 답답했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상황이 다시 역전되기 시작했다. 극우파들의 득세,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AI) 열풍이 기후위기 논의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기후변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석연료에 토대를 둔 성장을 절대적 선이라고 우기면서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트럼프’는 미국에만 있지 않았다. 유럽, 남미, 아시아의 극우 정치인들이 여기에 동조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빠지면서 그나마 합의에 이르렀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2026년 현재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전쟁은 이러한 과거로의 회귀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극우파의 득세는 경제위기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었던 40여 년의 짧은 자본주의 사이클이 위기에 빠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극단주의에 현혹되기 쉽다. 그리고 투기적 성격의 불로소득 추구가 경제적 위기를 구해줄 것처럼 선전하는 정치적 수사에 휩쓸린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열풍은 경제의 금융화가 일상에까지 뿌리내리게 했다. 이렇게 되면 반-생태적 확대재생산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듯이 전시된다. 인공지능은 일종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급전환점)로 작용하고 있다. 상용화된 인공지능은 아주 빠르게 일상을 파고들었다. 일상, 노동 현장, 회계와 통역 같은 전문 영역, 그리고 학술적 연구, 예술적 창작에 까지 영향을 끼쳐 삶의 양식을 돌이킬 수 없게 바꾸고 있다. 자동차와 휴대전화가 인간을 일종의 사이보그로 만든 것처럼, 인공지능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을 지탱하는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는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확장하는 속도는 에너지전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

색 전환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

또 하나의 비판적 조건은 대학과 학문 공동체의 상태다. 대학은 극우파의 득세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인공지능이 자본주의적 이윤 논리에 따라 폭주하는 현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담론을 생산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의 대학은 ‘산학협력’으로 불리는 이해타산의 논리를 ‘맹렬히’ 따라가고, 왜곡된 정치적 선동에 동조하며, 마치 인공지능이 절대 선인 것처럼 모든 연구기획에 AI를 덧칠하고 있다. 대학 안에서 협소한 성장주의와 과학주의, 기술적 해결의 신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생태주의의 시각에서 지금의 조건은 ‘절망’적이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계속해서 말하고, 비판하고, 토론하고, 행동해야 한다. 인권학자 조효제의 말, 비판, 토론, 행동은 그래서 값지다. 인권 학자로서 쌓은 학문적 통찰을 인간-너머로까지 넓히려는 노력은 많은 대학 구성원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학문적 실천의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동료 연구자들을 일깨운다. 『탄소 사회의 종말』(2020)과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2022)에 이은 『불타는 지구에서 다르게 살 용기』(이하 『다르게 살 용기』)는 분과 학문으로 가로막힌 협소한 생각과 학문 공동체까지 잠식하고 있는 경쟁과 이윤의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환의 서사’를 말하는 인권학자 조효제의 ‘용기’와 학문적 부지런함의 결과다.

『다르게 살 용기』는 15개의 질문에 답하면서 기후위기가 글로벌 다중위기 시대 다양한 위기와 중첩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 위기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류의 역량을 갉아먹고 있다. 하지만 인권이론가 조효제는 절망하지 않는다. 위기로부터 ‘파국의 합리성’과 ‘파국의 생산성’을 읽어내기 때문이다. 파국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패러다임과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선형적 세계관으로는 더는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각성일 테다. 인간-너머의 존재론과 인식론으로 전환해야만 한다는 각성은 개인이 결단하는 용기가 아니

라 집합적으로 체험하는 파국이 주는 학습의 효과다. 이것은 선형적 세계관을 넘어서 복잡계의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촉발한다. 그런데 이런 전환을 위한 준비는 이미 오래 쌓여온 논쟁으로부터 자양분을 얻는다.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돌봄의 윤리와 사회적 재생산의 정치, 그리고 이단 경제학이 추구했던 만족의 경제학은 『다르게 살 용기』가 주장하는 포스트-자본주의 세계관과 만난다. 그리고 행복, 즉 아리스토텔레스적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의 중요성은 탈-성장론이 주장하는 ‘다른’ 세계의 원리와 만난다. 어쩌면 『다르게 살 용기』가 추구하는 길은 신고전과 경제학이 지배하는 사회과학의 과학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 경제학 비판의 기획일 수도 있다.¹⁾

파국의 합리성과 파국의 생산성은 각성의 계기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바뀌지는 않는다. 지배적인 과학, 기술 경제의 패러다임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이 급전환점으로 삶의 양식을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틀 지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다르게 살 용기』는 세계관을 어떻게 교육하고 학습할 것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 조효제는 교육과 학습은 일상의 실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녹색 행동이자 민주 행동이라고 제안한다. 그런 행동의 주체는 바로 녹색 시민이라고 말이다. 녹색 시민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자연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의식을 가진 시민이다. 이제 녹색 시민이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되어야만 포스트-자본주의적 세계관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르게 살 용기』는 다수로서의 녹색 시민의 정치적 목표는 ‘변혁적 중도’로 제시될 때 설득력을 얻는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다르게 살 용기』는 급진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살고 있는 세계의 상식을 비판하지만, 그런 상식의 세계에서 멀리 떨어

1) 생태주의적 경제학으로부터의 신고전과 경제학 비판은 서영표, “존재론적 깊이의 인식과 인식론적 상대주의의 실천: 포스트-혼종성 시대 지식생산과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탐라문화』 제69호, 2022에서 논의되었다.

져 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다수로서의 녹색·민주 시민은 일상에서 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효제의 주장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이야기’다. 책의 부제가 ‘새로운 전환의 서사를 위하여’인 이유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논쟁거리가 있다.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규범적 담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남아 있다.

이 책의 규범적 태도는 ‘용기’라는 말에 응축되어 있다. ‘용기’는 결단할 의지다. 그런데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기존의 논리와 패러다임은 압도적 힘을 발휘한다. 파국의 체험으로 알게 되는 위기와 거기로부터 오는 공포가 곧 변혁적 행동을 낳지 못하는 것은 제도와 관행으로 존재하는 압도하는 물질적 힘 때문이다. 게다가 대다수는 신자유주의가 구조화한 무한 경쟁의 조건에서 매일을 살아내야 한다. 삶의 조건이 녹색이든 아니든 신경 쓸 여력도 힘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규범과 당위인 녹색 시민의 삶 양식은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전환의 서사는 ‘계몽의 서사’로 남을 위협에 처한다.

규범적 서사로 남을 위협은 생태주의가 해결해야만 하지만 쉽게 풀 수 없는 곤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녹색 정치를 확장하기 어렵다. 물론 그 어떤 주장도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렵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규범적 의무인 녹색의 윤리가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한,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녹색 전환이라는 서사를 말해 보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압도적 힘을 가진 구조적 조건이다. 하지만 더 강력한 힘은 관행과 제도로 만들어진 정신이다. 흔히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무의식을 지배하는 성향 말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경쟁에 길들여진 정신이다. 그래서 소유한 것을 내려놓고 어떤 존재로 살 것인지 질문하고 반성해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가능하지 않다. 돌봄과 공존의 윤리가 삶의 양식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이기적 욕망과 개인의 만족으로부터 녹색의 열망을 끌어낼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생태 철학자 케이트 소퍼(Kate Soper)를 따라 이러한 고리를 대안적 쾌락(alternative hedonism)이라고 불러본다.²⁾ 자동차로 가득한 도시에서 소음과 미세먼지에 시달리면서, 사람과 만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상실하고, 그리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는 것은 현대 문명의 쾌락이기보다 고통이다. 대중교통을 잘 정비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했을 때 얻는 만족을 그러한 고통과 비교해 보라. 무엇이 쾌락인가? 자동차만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는 자동차 이용이 쾌락과 만족을 준다고 착각하게 한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자동차 때문에, 도로 때문에 무엇을 잃고 있는지 말해 보자. 건강, 공적 공간과 사회적 유대, 자연적 교감.....

녹색 시민은 개인의 동기와 전환의 당위가 만나는 곳에서 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선형적이지 않은 복잡계에 살고 있다. 인류세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 논쟁이 촉발한 각성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연적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웠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제시된 존재론적 사고의 전환이다. 그러나 존재론적 전환이 곧 일상의 인식론적 전환을 결과하지는 않는다. 인식론적 전환은 윤리적이며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학술적 담론의 존재론적 전환은 일상의 인식론적 실천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래서 쾌락과 만족을 비교하고 그것으로부터 행위 동기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서사가 필요하다. 『다르게 살 용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이 제기하는 녹색 시민을 규범적 바람에서 현실적 행위자로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 거리를 제기할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다르게 살 용기』는 급진적이다. 정치적 수사로만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적 세계관과 자본주의적 체계를 비판하지 않고서는 녹색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암시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2) 케이트 소퍼, 『성장 이후의 삶-지속가능한 삶과 환경을 위한 ‘대안적 소비’에 관하여』, 한문화, 2021. 이에 대한 설명은 서영표, “자연과 사회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인간주의, 포스트휴머니즘, 자연주의 논쟁,” 『안과 밖: 영미문화연구』 제53호, 2022를 보라.

그래서 이 책은 ‘좌파적’이다. 그런데 굳이 ‘중도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다. ‘좌파’라는 말이 담고 있는 여러 의미가 때로는 ‘좌파적’ 정치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책이 ‘중도적’인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중도적’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사용해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굳이 좌파나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은 아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어떤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유보하고, 더 구체적인 목표 지향을 말하는 것은 어떨까? 대안적 쾌락주의는 그런 목표 지향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다. 취약성과 불안을 안고 사는 인간이 인간-타자, 비인간-타자, 사물-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잡종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자연주의를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역사적 역량을 그러한 자연주의적 각성으로 위치 지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은 비-환원적 자연주의(non-reductionist naturalism)라고 부를 수 있겠다.³⁾ 『다르게 살 용기』의 기여는 이렇게 윤리-정치적으로 한 발 더 구체적 삶에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길이 논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고 있다. 이제 더 넓고, 더 깊고, 더 민주적인 논쟁을 시작해 보자.

3) 서영표, “기후위기 시대의 문제 제기-기후위기와 녹색 전환,”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 제5호, 2025는 기후위기를 비-환원론적 자연주의 관점에서 논의했다.